



中, '식품라벨표기규정' 연내 정식 시행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6월 19일자로 '식품라벨표기규정' (食品標識標注規定) 의견청구안을 대외 발표해 사회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올해안으로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식품이 많고 소비자 고발건 중 식품표기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식품마크표기를 체계화하기 위해 규정도입을 계획 중이다.

'규정'은 중국내 생산·판매되는 식품과 중국내 판매되는 수입식품의 라벨표기를 다루고 있으며 식품라벨표기는 식품명칭, 품질, 수량, 특징, 식용

및 사용방법, 생산자와 판매상 등 관련정보를 표시하는 문자·기호·숫자·도안 등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규정'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즉석 제조 후 현장판매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가공돼 노출된 형태로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식품은 모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운송후 시장에 진입해 노출상태로 판매되는 식품도 운송포장에 동 '규정'에 의거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식품라벨에는 식품명칭, 제조기업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생산비준번호 포함)와 품질보증기간, 순수함량, 성분 및 정량표시, 표준번호, 품질등급, 식품분류표기, 생산허가증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성분 중 식품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식품첨가제 함유'로 표기하고 첨가제 종류, 명칭 또는 코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 3mm 이상의 크기의 중문글자로 단독 경고표기를 해야 한다.

중문단독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리방사처리된 식품이나 원료, 개봉후 저장이 적절하지 않거나 원포장용기내 저장이 적절하지 못한 식품, 일부 소비자가 과민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나 이러한 원료로 제조된 식품, 식품과 혼합포장,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협한 비식용제품, 그리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무지방연유, 무지방가당 농축연유, 무지방우유가루, 함유음료 등은 '유아 식품을 완전히 대체불가능' 또는 '무지방우유는 유아식품으로 부적합' 또는 '유아식품이 아님' 으로 표기해야 한다.

'규정'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식품라벨에 아래의 내용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내 정정해야 하고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라벨에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치료 또는 보건작용에 대한 명시 또는 암시, 식품에 대한 잘못된 방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 또는 사기성 방식의 묘사 또는 소개,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의 일부 성질과 기타 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 암시적 언어, 도형, 기호 등이 있을 경우 예외로 둔다.

한편 판매용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명칭, 순수함량, 원산지 및 중국내 등록된 대리상이나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 생산(분류포장)일자과 품질보증기간, 식품특징과 사용조건에 따라 표기할 필요가 있는 주요 성분 및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동 규정

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는 일정기간내 시정해야 하고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폐지가격 상승세 세계 폐지 소비 2009년 2천만톤 예상

중국의 폐지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폐지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폐지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산 OCC는 톤당 35달러 상승한 2백~2백5달러, ONP는 톤당 10~15달러 상승한 1백80~1백90달러, 혼합폐지는 톤당 20달러 상승한 1백75~1백8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산 폐지의 가격 상승은 유럽과 일본산 폐지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쳐 종류에 따라 톤당 5~38달러의 가격인상이 이뤄졌다.

폐지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바이어들은 최소한의 폐지만을 구매하며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골판지원지와 신문용지 생산업체들은 원료로 사용될 OCC와 ONP를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지급하는 등 폐지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시장 관계자는 많은 공장들이 폐지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신설된 대형 골판지원지 및 신문용지 생산설비의 가동이 계획돼 있어 폐지 공급은 더욱 타이트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는 등 악재가 겹쳐 있어 폐지공급에 각 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폐지 수입 증가 미국, 전체 수입 40% 차지해

인도의 폐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 탈목 설비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폐지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의 폐지 수입은 매년 6.5% 증가, 2008년 2백30만톤, 2012년 3백만톤, 2015년 3백5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는 전체 수입량의 4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20%에 해당하는 31만톤을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폐지의 대부분은 OCC, 혼합폐지 등이며 최근 들어 매년 7%의 수입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 미국의 폐지 수출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71만4천톤을 기록했지만, 2007년에는 4월까지 이미 86만6천톤의 폐지를 수입해 인도의 폐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美, 건보식품 표시함량 규제 강화 제조사 보증 의무화, FDA 이번 달 말 시행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건강보조식품 메이커들에게 제품의 라벨에 표시한 것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해 보증하도록 하는 새 법을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의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연간 규모가 2백20억 달러에 달한다.

새 법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서 더욱 철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처방약이나 일반약(OTC)과는 달리 다이어트 보조제나 스포츠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제들은 식품으로 규정, 약품에 적용하는 엄격한 안정성 지침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은 라벨에 표시된 성분들이 모두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이 많고 함유돼 있어도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거의 많거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살충제나 금속물질 또는 그 밖의 미지의 물질들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큰 물질들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FDA의 분석으로 밝혀진 사례로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에서 처방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채 함유돼 있었다.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FDA의 새 법은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종업원 수가 5백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는 2008년 6월까지, 종업원 수 5백인 미만인 회사는 2009년 6월까지, 종업원 수가 20인 미만인 회사는 2010년 6월까지 법의 시행이 유예된다.

오스트리아, 제지산업 지속 성장 2006년 전년대비 7% 매출액 증가

오스트리아 제지산업이 원재료값 상승 등 외부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Michael Gr·ller 오스트리아 제지업자협회 (Austro-papier) 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제지업계는 2006년 생산량 기준 총 5백20만 톤, 매출액 기준 총 36억 유로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 7.0% 증가한 실적으로 오스트리아 제지 산업의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Austropapier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 제지산업은 17년 전인 1989년과 비교해 생산량 측면에서는 3배, 매출액 규모면에서는 2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27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 비용의 증가,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Biomass(목탄 발전) 설비 확대에 따른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외부적인 조건의 열악함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제지산업은 수출비중이 85%에 이를 정도의 전형적인 수출산업으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 등 국제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 다양한 기능성 및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산 고급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Gr·ller 씨에 따르면, 2006년부터 본격화된 에너지, 목재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오스트리아산 종이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중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비용의 증가는 업계 차원에서 통제 불가능한 요소이나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오스트리아는 Biomass(목탄발전) 분야에 높은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형 Biomass 발전설비의 건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이런 Biomass 발전설비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관련 발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 및 나무 찌꺼기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유발했고, 그 결과 제지산업 부문에서의 원자재 부족 및 자재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06년 한 해 동안 관련 원자재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원자재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면서 Biomass 지원책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지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올해도 원재료 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스트리아산 종이제품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급 제품이라는 오스트리아 제품의 특성상 수요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